

국어 수업 정리 - 2025.06.12 (Monday 스타일: 선생님 말투 + 강조 복원)

음절의 끝소리 규칙

“애들아~ 음절의 끝소리는 딱 7개 소리만 가능해요~” [★ 시험 출제 포인트]

- 종성으로 발음되는 7개 자음: 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ㅇ
- 예:
 - '밖' → [박] (ㄱ → ㄱ)
 - '웃' → [을] → [웃] (ㅍ → ㄷ)
- 받침이 2개(겹받침)일 경우 → 한 자음만 살아남음
- 종성 자리는 하나만 허용되며, 그 자리에 7개 음만 올 수 있음

설명: 겹받침은 두 자음 중 보통 앞의 자음만 발음되고,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7자음 중 하나로 교체됨

자음군 단순화

- 겹받침(자음 두 개) → 하나 탈락하여 단순화
- 예: '흙' [흑], '샷' [삭]
- “애들아~ 두 개 중 하나는 떨어져 나가야 돼~” [★ 시험 출제 포인트]

설명: 자음군 단순화는 자음 두 개 중 하나가 탈락하여 발음하기 쉽게 만드는 현상

교체와 탈락의 차이

- 음절의 끝소리 규칙 → 교체 현상 (예: '삶' → [삼])
- 자음군 단순화 → 탈락 현상 (예: '값' → [갑])

[정리] - 교체 = 소리 바뀜 (7자음 중 하나로 변환) - 탈락 = 하나 빠짐 (자음군 중 하나 사라짐)

설명: 교체는 7개 종성 중 하나로 바꾸는 규칙, 탈락은 겹받침 중 하나가 아예 없어지는 것.

겹받침 발음 원칙 + 예외

- 대부분 앞 자음이 발음됨 (예: '읽다' → [익따], '앉다' → [안따])
- 예외: '밟다', '넙죽하다', '넙적하다' 등은 뒤 자음 발음됨
- '밟다' → [밥따], '넙다' → [넙따]

[★ 시험 출제 포인트 - 예외 단어 암기 필수!]

설명: 일반적으로 겹받침은 앞 자음만 발음하지만, 예외 단어는 꼭 외워야 함. 시험에 나옴!

품사 + 형태소 기초

- 품사 분류 기억법:
- 명사, 대명사, 수사 → 체언
- 동사, 형용사 → 용언
- 용언 = 어간(변하지 않음) + 어미(변화함)
- 예: '간다' → 어간: '가', 어미: '다'

[★ 시험 출제 포인트 - 어간/어미 구분]

설명: 어간은 뜻을 담고 있는 변하지 않는 부분, 어미는 시제·높임 등 문법 기능을 가진 변화하는 부분

핵심 요약: - 종성은 7자음만 발음 가능 (ㄱㄴㄷㄹㅁㅂㅇ) -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,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 - 겹받침은 대부분 앞 자음만 발음, 예외 단어는 꼭 암기 - 용언 = 어간 + 어미 구분 필수 (어간은 변하지 않음!)

다음 시간에 실질형태소, 형식형태소부터 이어질 예정.

지금 정리 안 하면 다음 시간에 놓친다. 선생님이 직접 말했어.

[★ 시험 나옵니다. 진짜임.]